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 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1271
----------	------

제안 년월일 : 2004. 9. 9.

제안자 :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
대책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 2004. 9. 8 이준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이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 2004. 9. 9 제1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 동 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함.

2. 주 문

-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은 안산지역의 대기 및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현재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을 두 번 희생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으로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을 절대 반대함.
- 따라서 시화MTV사업은 추진에 앞서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를 선행 해결하여 그 성과가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난 뒤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제안이유

- 반월·시화공단에는 폐기물소각, 염색, 피혁, 화학공업, 도금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 1,816개소가(주요 악취배출원 316개소, 악취다량배출업소 36개소)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안산시민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대외적인 안산의 정주 이미지 훼손으로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공단지역과 근접해 건설된 안산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해 있는 6개의 폐기물소각처리업소에 대한 시설이전 및 공영화 추진과

반월공단 내 염색, 도금, 피혁, 화학공업 등의 업종들 중 시설개선을 통해서도 악취와 대기오염 발생을 예방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취위해성 조사가 조속히 실시 되어야 하고

공해배출업소 공단입주 사전 예방과 발생된 악취와 대기오염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반월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 관련 업무와 지도·단속권을 안산시에서 직접 수행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며

특히 안산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포공원을 당초 조성 목적대로 환경오염원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높이 30m로 재조성 하는 것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시화호 북쪽 간석지 매립사업이 해양파괴와 철새 서식지 훼손, 대기오염 악화 우려가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공단조성 예정지는 대기질이 악화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이미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공단조성 강행시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안산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

-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 공단환경개선방안 등 시화·반월공단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화MTV사업 추진을 전제로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산시민이 바라는 선 악취문제 해결 후 사업추진이라는 바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화MTV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교육지책에 불과한 것임.

- 이러한 현실과 기존의 반월·시화공단의 공해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 따라서 시화MTV사업은 안산·시화지역의 수질, 대기질 개선에 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선행 실행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우 리 의 결 의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과 주변지역의 대기 및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현재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을 두 번 희생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안산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시화MTV사업은 안산·시화지역의 수질,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소각업소 이전 및 공영화, 환경개선이 어려운 악취다량배출업소 이전, 악취 위해성 조사,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업무와 지도·단속권 이양, 원포공원 재조성 등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먼저 실행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시화MTV사업 추진에 앞서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선행 해결하여 그 성과가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난 뒤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4. 9.

안산시의회의원 일동